

교수의 직업윤리

● ● ● 강 선 보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의 세 이념하에 사회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교수로서 학자적 삶의 어려움은 바로 이러한 교육, 연구, 봉사의 세 분야에서 공히 고도의 질적 수준과 도덕성을 견지해야 하는 데에 있다.

I. 들어가는 말

최근 황우석 교수 파문으로 인해 대학 교수의 윤리의식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교수도 하나의 엄연한 직업이다. 그런데 직업에는 윤리가 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간에 직업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 직업의식의 형성, 직업활동의 과정, 그리고 직업활동의 결과 등에 수반되어야 하는 인간적·도덕적·사회적 책임은 한 직업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직업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이나 비난과 같은 사회적 공감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윤리 의무를 잘 이행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직업적 활동이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직업윤리는 크게 일반 직업윤리와 특수 직업

윤리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직업윤리를 간략히 살펴본 후에, 교수라는 특정 직종이 가져야 할 직업윤리 즉 특수 직업윤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직업윤리

현대사회에 와서 직업윤리(vocational ethics)가 부쩍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이 생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윤리도 가족윤리를 근간으로 전체 윤리체계가 형성되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이 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직업윤리가 전체 윤리체계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족윤리가 중시됐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윤리가 더 중시된다.

이러한 직업윤리는 “직업을 공통분모로 하여 형성된 특정 사회에서 개개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삶의 이치”로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임홍순·이태하, 2004). 첫째, 직업 일반의 윤리로서 모든 직업 즉 직업 일반에서 요구되는 행동규범으로서 예를 들어 근면성, 신뢰성, 책임성, 협동성 등은 직업의 다양성을 떠나 모든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이다. 둘째, 특수한 직종에서 요구되는 행동규범으로서 예를 들어,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생명경외의 정신이나 환자의 진료상황에 대한 비밀 준수 등은 의사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특수 직업윤리이다. 이러한 일반 직업윤리와 특수 직업윤리의 관계는 일면 윤리적 원리와 규범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근면성, 신뢰성, 책임성, 협동성 등은 모든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윤리적 원리이며 생명경외의 정신이나 비밀 준수 등은 의사와 같이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이 신뢰성과 책임성과 같은 보편적인 윤리적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윤리적 규범이다.

이렇게 보면 교수라는 특정 직업인도 보편적인 윤리적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적인 윤리규범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사실 직업윤리의 근본은, 이미 오래 전에 플라톤(Plato)이 이상국가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 맡은 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직업윤리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사실 우리가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그 직종을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덕성의 해이로 앓고 삶이 불일치 할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구조에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며, 양자 모두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직업윤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체적인 삶의 틀 속에서 보아야 한다. 김태길(1997)은 직업윤리의 문제를 전체로서의 삶의 문제와 연결시켜 고찰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문제 상황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현대를 살아야 하는가가 밝혀지는 동시에, 직업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직업윤리를 논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삶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Ⅲ. 교수의 직업윤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발전은 서구 대학의 전통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구 대학의 기원은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Academeia)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리세움(Lyceum)이 있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고등교육이 있기는 하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대학은 없었다. 다시 말해 고대 그리스 시대의 학문 수준 역시 높은 것이기는 했으나 그것이 지속적인 학문적 형태로 조직되어 연결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우리는 오늘날 대학의 기원을 중세에서 찾는다.

대학은 중세에 생겨나 시대를 거쳐 오면서 상아탑으로서의 위상에서부터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요구에 도전받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후기산업 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라고 불리는 오늘날 교육에 대한 개념 역시 새로운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그 기능과 역할도 새롭게 자리매김되면서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나름대로의 대학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양적 팽창과 함께 자연스럽게 부상된 문제가 대학의 질적 저하 문제인데, 그 속에는 교수 및 학생의 질적 저하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대학의 질은 교수의 질이 결정한다. 연구하면서 학생을 가르쳐야 하고, 나아가 사회를 선도해야 하는 교수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는 날이 갈수록 막중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질을 결정하는 교수의 학자적 삶의 질 관리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즉 교수라는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인은 특수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학자적·윤리적 삶을 살아

연구자로서의 교수는 고차적인 진리의 창출을 위해 학자적 양심에 입각하여 부단한 연구수행을 하여야 하며,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연구자에게 인류애에 대한 뜨거운 소명의식이 없다면 인류파멸 및 문명파괴적인 연구결과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이기 이전에 인간이 앞서야 한다.

감으로써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표를 보여야 한다. 그렇다면 현 시대의 교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대학의 세 이념으로 교육(교수), 연구, 봉사를 든다. 그래서 대학교수는 교육(교수)자, 연구자, 사회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책무가 주어져 왔다. 여기에서는 교수의 직업윤리를 세 가지 이념에 근거하여 교육(교수)윤리, 연구윤리, 봉사윤리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교육(교수)윤리

과거 전통적인 영국 대학들은, 대학이란 보편적인 지식을 교수하는 장소라는 명제를 내걸고, 대학의 목적이란 지적인 것이지 도덕적인 것이 아니며, 또 한편 대학이란 고차적 지식을 발견하거나 창조하기보다는 보편적 지식을 보급하고 전달하여 영국 신사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때의 대학의 이념은 광범위한 의미의 '교육'(education)이라기보다는 '학구적인 교수'(academic teaching)라고 할 수 있다. 즉 심오한 학문을 가르쳐 국가의 지도자를 양성함을 대학의 이념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대학은 산업혁명을 거쳐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대학의 이념의 변화는 교수의 역할과 책무의 변화를 유발한다. 이것은 교수의 학자적·윤리적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술한 과거와는 달리 교수는 교육(교수)에만 전념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여전히 교수로서의 기본 직분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대에 대학교수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교육(교수)윤리들을 준수해야 하는가?

첫째, 교수는 우선 자기가 맡은 전공 영역에 능통해야 하며, 이를 능숙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강 없이 충실하게 강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사전 교재연구가 충분해야 하며, 그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에 숙달해야 하고, 외부 강의나 회의를 적절히 관리하여 최적의 컨디션으로 매 강의에 빠짐없이 임해야 한다. 전공 관련 최신 이론을 공부하여 강의에 반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멀티미디어 등을 활

용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나이 든 교수들이 전공 영역 연구나 최신 교수방법에 대한 연마를 나이 탓으로 돌리면서 게을리 하는 경향이 많다.

둘째, 교수는 학생들의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생활문제, 학업문제, 진로문제 등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고 있다. 이들을 적절하게 지도하기 위해 교수는 학생들의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동봉동행적(同朋同行的)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수는 전공지식이 해박한 교수보다는 인간성(human character)이 풍부한 자상한 교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교수들은 상담이 교수의 기본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들은 학생 상담이 상담소나 학생생활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 상담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문제들은 그러하다. 그러나 교수의 교육영역에는 학생들의 삶에 대한 포용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교수와 학생 간에 인간적인 신뢰와 개방이 없다면 지적교육도 피상적이 된다.

학생의 인간성(사람됨)은 인간적인 교수의 인간적인 교육방법에 의해 계발될 수 있다. 즉 교육내용이 아무리 인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인간성이 결여된 교수에 의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진다면, 학생들은 결국 비인간적인 '어떤 것'을 학습하게 된다. 결국 인간화 교육은 인간적인 교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수가 학생을 수단시하지 않고 인격적 주체로 파악하는 상호 인격적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고 본다(강선보, 2003).

교육이란 근본적으로는 살아있는 인간이 또

하나의 자유로운 인간을 만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이란 그 가장 깊은 본질적 차원에 있어서는 역시 기계적인 기술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삶의 대결이다(Bollnow, 1967). 그러기에 교수와 학생 간의 참된 관계는 교육내용과 방법에 선행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부의 과제물 평가, 그리고 대학원의 논문지도와 심사에 최선을 가해야 한다. 과제물 평가에 최선을 다하는 교수들은 자신이 직접 학생들의 과제물들을 일일이 정밀 검토한 후 코멘트를 붙여 학생들에게 곧장 돌려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성장을 위한 반성적 사고를 하게 만든다. 필자의 학부 시절의 한 은사님은 학생들이 제출한 리포트 속의 맞춤법 틀린 것까지 빨간 펜으로 교정하여 돌려주었는데, 그것을 받은 제자들은 무척 감격스러워 하였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최근에 대학원의 학생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교수들은 석·박사 과정 제자들의 논문지도와 심사를 게을리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함량 미달인 논문들이 버젓이 통과되기도 한다. 이 경우, 최소한 수 명이상의 공범 심사위원들이 눈을 감아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모 대학 자연계의 어떤 교수는 자기가 통과시킨 제자의 논문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웃지 못할 보도가 있었다. 논문지도를 얼마나 소홀히 하였기에 자기가 지도한 제자의 논문도 기억하지 못하겠는가?

2. 연구윤리

홍불트는 중세 대학의 연구기능을 계승하여, 대학의 이념을 고독과 자유로 보고 고독한 연구를 통해 자유롭게 가르치는 것만이 대학의 본질을 표현한다고 하여 연구와 교육은 불가분

의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중세 대학의 연구이념을 독일 대학의 전통으로 정착시키고자 하였다(엄정식, 1994). 이처럼 교육(교수)의 이념을 더 강조한 영국의 대학과는 달리 독일의 대학은 연구의 이념을 더 강조하였다.

대학에서 교육(교수)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연구(학문탐구)의 기능도 중요하다. 기존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적 검증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통한 지식의 증진, 확산 그리고 전수가 대학의 본질적 사명이다(송병순, 2002). 대학에서 교육(교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즉 양질의 교육의 전제조건이 연구인 것이다. 학자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수는 새로운 진리와 지식의 창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진리는 사제가 공동으로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진리와 지식을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연구자(혹은 학자)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기본 윤리가 있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연구윤리로 교수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지적호기심에 기초한 동기의 자발성, 지식의 창출과 전수라는 목적의 순수성, 그리고 전문적 활동의 자율성과 윤리성이다(송병순, 2002). 좀 더 구체적으로 교수들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몇 가지만 제시해 본다.

첫째, 연구비 수주에서 집행 및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직성,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교수들의 연구와 관련된 비리들은 대부분 수주단계에서의 비정상적 로비, 집행단계에서의 연구비 전횡, 정산단계에서의 허위증빙 등에 관한 것들이다. 이러한 비리행위의 원인

은 교수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연구관리의 제도적 허점이 복합적으로 유착된 데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연구비리를 적발하여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과 아울러 교수가 되기 이전의 직전교육(pre-service education) 및 교수 임용 이후의 현직교육(in-service education)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논문부정은 명백한 학문적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지식사회의 느슨한 윤리적 인프라도 연구부정의 한 촉발제가 된다. 대학의 실험실에서 선배의 논문실험을 대신해 주는 것이 당연시되는 풍조에서, 이미 대학원생 때부터 논문부정을 죄의식 없이 내면화하게 된다. 교수도 선배도 이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눈감아 줌으로써 학문사회가 도덕적 불감증화 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연구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무감각한 우리네 풍습으로 보면, 남의 책이나 지식을 훔치는 것에 관대하여 크게 죄악시하지 않았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이 발동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상황에서 우리의 연구윤리를 엄정하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에서부터 연구윤리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부에서부터 리포트나 과제물 작성 시에 표절(최근에는 인터넷 관련 사이트에서 통째로 퍼오기도 함)이나 대필을 한 경우 시험 부정과 동일하게 처벌하여 학문의 입문단계에서부터 부정행위는 범죄행위임을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연구자로서의 교수는 고차적인 진리의 창출을 위해 학자적 양심에 입각하여 부단한 연구수행을 하여야 하며,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연구자에게 인류에 대한 뜨거운 소명의식이 없다면 인류

파멸 및 문명파괴적인 연구결과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이기 이전에 인간이 앞서야 한다.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학문이나 기술을 전수할 때에도 사람 됨됨이를 파악한 이후에 비로소 그것들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전수 이후를 생각하였음이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교훈이다.

3. 봉사윤리

대학의 사회봉사 이념이란, 대학이 진리탐구와 기존 지식의 전수 이외에도 그것이 속한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봉사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대학이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상아탑에만 안주할 경우, 대학은 고립되어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다. 대학에서의 연구결과를 사회에 응용하거나 적용해 보면서 그 현실성을 검증할 수도 있으며, 연구결과를 사회교육을 통해 사회에 확산시킬 수도 있다. 사회는 대학의 연구 성과를 사회발전에 도입할 수 있고, 대학은 사회로부터 연구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대학과 사회는 상호의존적 관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은 정부, 지역사회, 기업체 등과 서로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대학은 일정 부분 그가 속한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봉사는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의 또 다른 기능인 교육과 연구의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학 본연의 연구와 교육이 선행되지 않고는 봉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사회봉사를 위해서도 교수는 스스로 자율적인 통제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교수 스스로 자율적인 통제를 못해-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봉사라는 허울 좋은 명분 하에 교육과 연구를 등한시함으로써-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교수의 봉사활동에는 대내 봉사활동과 대외 봉사활동의 두 유형이 있다. 대내 봉사활동은 대학 내에서의 각종 보직활동, 교내 위원회 참여, 교수회활동 등을 의미하고, 대외 봉사활동은 대학 밖에서의 각종 위원회 참여, 자문활동, 시민운동, 방송활동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내 활동이든 대외 활동이든 다음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첫째, 교수의 사회봉사활동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교육(교수) 및 연구활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때때로 주변의 교수들 중에 왕성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교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대외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교수들을 학교 내에서 접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런 교수들의 경우 대체로 강의 및 학생지도와 연구활동이 소홀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교수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다소의 비난을 감수해 가면서도 외부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강의 및 학생지도 소홀 그리고 논문지도 소홀 등으로 학생들과 학교에 피해를 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나 학과 업무 처리 지연 등으로 주변 교수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둘째, 정부나 기업의 각종 위원회 참여 및 정책 자문활동 등과 같은 대외 봉사활동 시에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고 야합해서는 안 된다. 정부나 기업의 회의에 참여하여 건전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정부나 기업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늘어놓아 환심을 사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교수들도 있다. 그래서 정계, 재계, 관계를 기웃거리면서 교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대학사회를 오염시킨다. 결과적으로 교수의 비윤리적인 개인적 욕망 때문

에 피해를 보는 것은 애꿎은 국민과 고객들이
다. 교수는 봉사활동 시에도 반드시 보편적인
공동선의 추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IV. 나오는 말

대학은 자유로운 학문 분위기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세계평화의 증진
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와 세계에 대한 봉사를
지향한다. 요컨대 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의
세 이념하에 사회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교수로서 학자적 삶의 어려움은
바로 이러한 교육, 연구, 봉사의 세 분야에서
공히 고도의 질적 수준과 도덕성을 견지해야
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교수라는 직업
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윤리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 지식은 가르쳤으며 지식윤리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결과이다. 전공교육은 강조
했으며 인간교육은 제대로 하지 않았음이다.
대학교육을 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받은 교수
들의 도덕적 해이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에 입문하는 학
부시절부터 일반적인 직업윤리 교육을 실시해
야 하며, 대학원 과정에서부터는 학자로서 갖
추어야 할 특수 직업윤리를 어떤 형태로든 가
르쳐야 한다. 요컨대 예방교육을 하자는 것이
다. 즉 학자 초년생 때부터 교육, 연구, 봉사의
기본윤리를 몸에 배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하
여 훗날 교수가 되었을 때 학자적 양심에 따라
교육, 연구, 봉사를 함으로써 인격적·도덕
적·사회적으로 사표가 되어 국민들로부터 존
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강선보(2001). 21세기 대학교육의 이념과 방
향. 지식혁명시대의 교육과 대학. 김호진 편.
서울: 박영사.
- 강선보(2003). 마르틴 부버: 만남의 교육철
학. 서울: 원미사.
- 김태길(1997). 직업윤리와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송병순(2002). 대학교수의 윤리. 한국교육연
구, 8(1).
- 엄정식(1994). 개방화시대의 대학생과 민족적
자아의 정립.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대학교육의 방향 - 한국교육학회춘계학술대
회 자료집 -.
- 임홍순·이태하(2004). 현대인의 직업과 윤
리. 서울: 민지사.
- Bollnow, O. F.(1967). Existenzphilosophie
und Padagogik. 이규호 역. 실존철학과 교
육학. 서울: 배영사.

강선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스라엘 벤구리온대학교, 미국 위스
콘신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활동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연
구원, 강릉대학교 교수 및 학생생활연구소장, 교육철학회 이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겸
일반대학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마르틴
부버: 만남의 교육철학』, 『교육철학』, 『교육학개론』 외에 20여
권이 있다.